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Library Anxiety among Academic Library Users

장혜란(Chang, Hye Rhan)*, 오의경(Oh, Eui Kyung)**

초 록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A대학교 도서관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설문조사(LAS)를 수행하였다. 707명의 도서관이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기초통계를 분석하여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성별, 학년, 전공계열, 도서관방문빈도, 도서관이용교육과 도서관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서관불안을 나타내는 LAS 점수는 2.55점이고,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있다. 도서관이용교육은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도서관불안을 감소시키며, 도서관방문빈도의 증가에 따라 도서관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불안은 학년이 높고, 도서관방문빈도가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서관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es and analyze the library anxiety among academic library users, A University library users sampled systematically and surveyed. Data collected from 707 students a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previous studies. The average LAS score is 2.55 and show differences in sex, grade levels, and major areas of study. Library use instruction reduces anxiety subscale of barriers with staff. Library anxiety is also differ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library visit. Especially, the anxiety subscale of affective barriers is decreased according to the grade level and frequency of library visit. Based on the results,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to overcome the library anxiety.

키워드: 도서관불안, 대학도서관이용자, 이용자배경,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불안척도
library anxiety, academic library users, user background, library instruction, library anxiety scale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chrhan@smu.ac.kr)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겸임교수 (ohspace@paran.com)

1. 서론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정보의 추구하고 탐색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와 질의 정보가 양산되고 복잡하게 조직되어있는 정보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더욱 더 많은 정보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는 도서관 이용자 대부분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도서관불안(library anxiety)'이라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서관불안은 Mellon(1986)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발된 이론이다. 그는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담당자로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느낌을 도서관불안이라고 명명하였고, 도서관불안의 원인은 도서관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리고 지식 부족에 대한 상대적인 무능력과 열등감 등에서 찾았다.

대학환경에서 도서관불안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조사와 연구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제약은 단순히 정보 이용과 관련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활한 정보의 추구하고 탐색 및 획득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서관불안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Bostick(1992)이 Library Anxiety Scale(LAS)를 개발한 이후,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에 대한 측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극히 최근에 도서관불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대학도서관이 다른 종류의 도서관보다 조사 연구를 위한 정보 요구가 많다는 것을 가정하면, 정보 추구하고 이용의 실패 혹은 방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도서관불안에 대한 측정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여 도서관불안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추출된 도서관불안 관련 요인인 이용자의 성별, 학년, 전공계열, 도서관방문빈도, 도서관이용교육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서관불안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며, 분석결과를 통하여 도서관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불안의 측정

도서관불안이 정보행동의 특정 유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되는 동안, 도서관 이용을 방해하는 이용자

의 생각과 느낌을 측정하기 위한 경험적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방해 요인이 식별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연구활동의 성공적인 달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도서관불안에 대한 수량적인 측정은 Bostick(1992)이 Library Anxiety Scale(LAS)를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전문가 집단의 조언, 사전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다섯 가지 차원의 43개 문항을 도서관 불안 항목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은 크론바하의 알파계수가 0.80으로 우수한 내적 타당성을 보여 주었고, 2-3주 후 테스트에서도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0.74로 신뢰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43 항목에 대한 인자 분석 결과에서는 모두 5개의 요인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이 5개의 요인은 도서관불안의 하위 영역으로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barriers with staff), 정서적 장벽(affective barriers), 도서관의 안락함(comfort with the library), 도서관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library) 그리고 기계적 장벽(mechanical barriers)이다. 이들은 도서관 불안 전체 변량 중 51.8%를 설명하였고, 이 중에서 직원으로 인한 장벽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

에 대한 지식, 기계로 인한 장벽의 순이다.

Van Kampen(2004)은, LAS 개발 이후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AS의 보완이나 수정과 같은 활동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MLAS)이라는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LAS 문항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고, Kuhlthau의 Information Search Process Model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문항은 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서베이를 통하여 모두 여섯 개 하위영역에서 5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5점 척도에 의하여 평가되며,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포함되었다. 여섯 개의 영역은 편안함과 자신감, 정보탐색과정에서 발생한 불안감, 직원과 관련하여 느끼는 불안감, 도서관이용방법 이해의 중요성 인지정도, 컴퓨터와 주변 기기 및 전자 정보를 다루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물리적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안락한 정도이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은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모두 0.7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Onwuegbuzie와 Jiao(2004)는 도서관 불안과 심리적·환경적 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던 다수의 공동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LAS와 SPPCS, PASS, MPS, PEPES, Hope Scale, BDF 등의 척도를

조합한 도서관불안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인 도서관불안의 측정 보다는 도서관불안 유발 요인을 예측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도서관불안 측정이 시작된 이후 많은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정보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AS가 주도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LAS의 수정판으로 알려진 MLAS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정보불안요인 측정을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학부 대학생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2 선행연구

도서관불안 측정연구는 두 가지 경향으로 진행되어왔는데, 하나는 도서관불안과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로, 주로 연령, 학년, 도서관방문빈도, 도서관이용교육 경험 등의 요인이 도서관불안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다. 연령이나 학년이 높을수록 불안감을 덜 느꼈으며, 또한 도서관방문 목적이 색인 이용, 도서 대출, 검색 등 명백한 경우에 더 많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불안을 덜 느끼고, 도서관을 안락한 곳으로 여기며, 도서관 지식을 구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Jiao, Onwuegbuzie and Lichtenstein 1996; Jiao and Onwuegbuzie 1997b;

Shoham and Diane 2001). 남성과 여성의 비교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전공에 따른 비교 연구도 있는데, 도서관불안의 5영역 모두에서 역사학전공 학생들의 불안감이 물리교육전공 학생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rannan 2003).

또 다른 경향의 연구에서는 도서관불안과 대학도서관 이용자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환경적 요인과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심리적·환경적 요인의 측정은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도서관불안과의 관계는 LAS 측정점수와 해당 척도로 측정된 점수와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학습환경, 완벽주의(perfectionism), 자기인식(self-perception), 학술활동 지연성향(procrastination), 학습습관, 사회적 상호의존성 등이 도서관불안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Onwuegbuzie and Jiao 1998a; Jiao and Onwuegbuzie 1998; Onwuegbuzie and Jiao 2000; Jiao & Onwuegbuzie 1999a; Jiao & Onwuegbuzie 2002). 이러한 결과들 중에서 완벽주의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영향은, 학생들이 자신의 무지를 밝히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도서관에 질문하는 것을 꺼린다는, Mellon(1986)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자기인식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영향은, 학생들이 스스로 부적절한 도서관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Mellon(198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Onwuegbuzie와 Jiao(2004)는 도서관 불안은 자기인식, 성별, 학습수준, 학습형태, 완벽주의, 학술활동 지연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과 LAS를 조합하여 분석하면, 도서관불안에 예측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도서관불안에 다양한 정서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남태우와 황옥경(2005)은 도서관불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개념, 증상, 조사연구와의 관계,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 불안해소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권나현(2005)은 도서관불안에 대한 개념을 상세히 소개하고 도서관불안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도서관불안을 측정도구인 LAS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남태우와 박현영(2006)은 대학생들에게 조사연구 과정에서 도서관 이용후기를 작성토록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참여 학생 대부분이 도서관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47개 항목의 도서관불안 요인을 추출해냈다.

3. 연구 방법

3.1 측정도구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Bostick(1992)의 LA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15문항), 정서적 장벽(12문항), 도서관의 안락함(8문항), 도서관에 대한 지식(5문항), 기계적 장벽(3문항)의 다섯 영역을 측정하는 43개 문항에 성별, 학년, 전공계열, 도서관이용교육유무, 도서관방문빈도에 관한 5개 문항을 추가하여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 영역에서는 사서/학생보조원과의 의사소통, 접근시 발생하는 어려움, 사서의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측정한다. 정서적 장벽 영역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 도서관 이용의 즐거움, 도서관의 중요성 등을 측정한다. 도서관의 안락함 영역에서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쾌적함, 편리함, 안전성 등을 측정하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는 도서관 관련 지식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자신감 등을 측정한다. 기계적 장벽에서는 도서관내 각종 기계의 조작과 사용능력에서 유발되는 불안감을 측정한다.

3.3 데이터 수집방법

조사는 A대학교 도서관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A대학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로 10개 대학 68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전국 4년제 대학교의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재학 중인 학생은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설문조사는 비정상적인 도서관 이용이 발생하지 않는 주중의 평일(2006년 6월 8일 목요일) 하루 동안의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서관의 개방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3개의 출입구에서 진입하는 이용자의 33.3%(매 3명마다 1명씩)을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설문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다. 모두 1,230명의 이용자에게 설문을 권유하였고(복수 출입자 제외), 744명의 이용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응답률 60.5%),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707건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3.4 데이터 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 K for window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인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도서관불안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성별, 학년, 전공 계열, 도서관방문빈도, 도서관이용교육 유무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 Mann-Whitney 검정, ANOVA, Kruskal Wallis 검정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데이터 분석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LAS는 최초 개발 이후 20년이 넘게 많은 연구에 적용되어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LAS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지 점검하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 결과, 모든 문항에서 항목 제거 시 알파계수 값이 0.799 ~ 0.811까지의 값을 가지며, 전체 알파계수 값은 0.8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2 응답자의 분포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483명(68.3%), 남성이 224명(31.7%)으로 여성이 더 많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167명(23.6%), 2학년이 197명(27.9%), 3학년이 168명(23.8%), 4학년이 175명(24.7%)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전공별 분포를 보면, 인문사회계열 446명(63.1%), 자연과학계열 206명(29.1%), 예체능계열 55명(0.08%)으로 예체능계열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4.3 도서관불안점수 기초통계 분석

각 불안영역별 측정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불안점수 총점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측정된 도서관불안점수 전체의 총점은 109.53점, 평균은 2.55점으로 나타났다. Bostick(1992) 연구에서

산출된 평균 2.73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Bostick 연구의 대상자보다 본 연구 대상자가 도서관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던 다른 연구와 비교한 <표 2>를 보면, 본 연구 대상자

<표 1> 도서관불안점수 기초통계

하위영역	최소값	최대값	총점	평균	표준편차
직원으로 인한 장벽	1.25	4.00	39.30	2.62	0.44877
정서적 장벽	1.17	3.83	30.36	2.53	0.40140
도서관의 안락함	1.13	3.63	20.01	2.50	0.37711
도서관에 대한 지식	1.00	3.00	11.15	2.22	0.44287
기계적 장벽	1.00	4.00	7.56	2.52	0.49054
전체	1.54	3.59	109.53	2.55	0.31933

<표 2> 선행연구와의 도서관불안 점수 비교*

연구	도서관불안 측정 점수						독립변수	연구대상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	전체		
Bostick (1992)	2.49	2.48	2.94	3.65	2.75	2.73	대학수준/ 나이/ 성별	69명 학부생 대학원생
Shoham and Mizrahi (2001)	2.25	-	2.41	2.24	-	-	나이/ 성별/ 학년/ 언어능력/ 컴퓨터이용	339명 학부생
Jiao and Onwuegbuzie (2002)	2.12	2.49	2.25	1.94	2.61	2.48	SIS 측정점수	115명 대학원생
Onwuegbuzie and Jiao (2004)	2.13	2.50	2.25	1.95	2.62	2.29	AEM 측정점수	225명 대학원생
본 연구	2.62	2.53	2.50	2.22	2.52	2.55	성별/ 학년/ 전공계열/ 도서관방문빈도/ 도서관이용교육	707명 학부생

* 선행연구 중에서 LAS에 의한 도서관불안점수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만 비교하였음.

들의 도서관불안이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영역별 불안점수를 비교해 보면,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의 점수는 2.62점으로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서적 장벽, 기계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의 순이었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직원으로 인한 불안은 비교적 낮게 측정되고, 기계적 장벽과 정서적 장벽에 의한 불안은 높게 측정된 것과 본 연구의 결과는 차이가 있다. 도서관의 안락함으로 인한 불안 또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의 발생을 고찰해 보면, 직원의 과도한 업무량, 사서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 학생들의 무능력과 무지로 인한 두려움 등이 직원과 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과 정서적인 안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보 통신 및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기계적 장벽은 극복되고 있으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안락함이 크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4.4 성별/학년/전공계열과 도서관불안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인 성별, 학년, 전공에 따라 도서관불안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불안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불안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대한 지식 차원에서는, 남성이 2.23점 여성이 2.22점으로 미약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 < 0.05$). 직원으로 인한 장벽에서,

<표 3> 성별과 도서관불안 분석

하위영역	성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t	u	유의확률
직원으로 인한 장벽	여성	483	2.67	0.44665	4.287*	-	0.000
	남성	224	2.52	0.43612			
정서적 장벽	여성	483	2.57	0.39153	-	43339.500*	0.000
	남성	224	2.44	0.40794			
도서관의 안락함	여성	483	2.52	0.36725	-	47408.000*	0.008
	남성	224	2.44	0.39208			
도서관에 대한 지식	여성	483	2.22	0.44274	-	53082.500	0.684
	남성	224	2.23	0.44400			
기계적 장벽	여성	483	2.59	0.48992	-	49683.500	0.077
	남성	224	2.51	0.48831			
전체	여성	483	2.56	0.29156			
	남성	224	2.48	0.30324			

* $p < 0.05$

여성은 2.67점 남성은 2.52점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간의 불안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5$). 정서적 장벽에서는 남성 2.44점, 여성 2.57점,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는 남성 2.44점 여성 2.52점으로 역시 여성의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p < 0.05$). 기계적 장벽에서는 남성이 2.51점, 여성이 2.59점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 < 0.05$). 전반적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남정보다 크다는 점에서 Bostick(1992)의 연구 및 Soham과 Mizrachi(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위 영역별 분석에서, 정서적 장벽에서는 여성의 불안감이, 도서관에 대한 지식에서는 남성의 불안감이 크다는 Bostick(1992)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대체로 남성의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난 Jiao와 Onwuegbuzie 등의 공동 연구(Jiao, Onwuegbuzie and Lichtenstein 1996; Jiao and Onwuegbuzie 1997b) 결과와는 다르다.

학년에 따른 불안감의 차이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서관이나 정보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증가하여 불안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안감이 함께 해소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직원으로 인한 장벽에서는 2학년 2.67점, 4학년 2.66점, 1학년 2.58점, 3학년 2.57점의 순으로 나타나 2학년이 가장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

만 통계적 의미는 없다($p < 0.05$).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는 4학년이 2.53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1학년 2.51점, 2학년 2.49점, 3학년 2.46점의 순서로 나타났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에서는 1학년이 가장 불안감이 크며, 다음으로 2학년, 4학년, 3학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기계적 장벽에서는 4학년이 가장 불안감이 크며, 다음으로 3학년, 2학년, 1학년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p < 0.05$). 정서적 장벽 영역에서는 1학년이 2.63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2학년 2.56점, 4학년 2.47점, 3학년 2.45점의 순서로 나타났고,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불안감이 줄어드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에 대한 지식의 영역에서 학년별 집단의 불안감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경향이 없었던 Shoham과 Mizrachi(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장벽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가시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학년별 집단의 불안감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학년의 불안감이 3-4학년의 불안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1-2학년, 3-4학년의 두

<표 4> 학년과 도서관불안 분석

하위영역	학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χ^2	유의확률
직원으로 인한 장벽	1학년	167	2.58	0.44486	-	6.822	0.078
	2학년	197	2.67	0.51315			
	3학년	168	2.57	0.44139			
	4학년	175	2.66	0.45523			
정서적 장벽	1학년	167	2.63	0.40297	7.807*	-	0.000
	2학년	197	2.56	0.40020			
	3학년	168	2.45	0.40615			
	4학년	175	2.47	0.37286			
도서관의 안락함	1학년	167	2.51	0.33863	-	1.781	0.619
	2학년	197	2.49	0.36216			
	3학년	168	2.46	0.42351			
	4학년	175	2.53	0.38115			
도서관에 대한 지식	1학년	167	2.24	0.44486	-	2.270	0.518
	2학년	197	2.23	0.42204			
	3학년	168	2.18	0.45250			
	4학년	175	2.22	0.45523			
기계적 장벽	1학년	167	2.50	0.48547	-	6.691	0.082
	2학년	197	2.55	0.48761			
	3학년	168	2.56	0.51401			
	4학년	175	2.64	0.46842			
전체	1학년	167	2.54	0.26034			
	2학년	197	2.55	0.31665			
	3학년	168	2.47	0.32018			
	4학년	175	2.53	0.29091			

* p<0.05

집단간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안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1학년(신입생)이나 2학년생들의 불안감이 다른 학년의 불안감보다 크다는 선행 연구(Jiao, Onwuegbuzie and Lichtenstein 1996; Jiao and Onwuegbuzie 1997b) 결과와 일치하며, 학부생들의 불안감이 대학원생들의 불안감보다 크다는 Bostick(1992)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전공계열에 따른 불안감의 차이는

<표 5> 학년과 정서적 장벽 차원의 도서관불안 사후분석

학년	응답자 수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3	168	2.4514	
4	175	2.4714	
2	197		2.5630
1	167		2.6342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체로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과학계열이나 예체능계열에 비하여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으로 인한 장벽에서는 예체능계열이 2.64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 ($p < 0.05$). 정서적 장벽에서는 예체능계열이 2.62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자연과학계열 2.58점, 인문사회계열 2.50점의 순서로 나타났고, Kruskal Wallis 검정에 의한 평균 비교에서 χ^2 의 근사 유의확률이 0.0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 < 0.05$). 즉, 정

서적 장벽에 의한 불안은 계열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다.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는 예체능계열의 불안감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에 대한 지식에서는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의 순으로, 기계적 장벽에서는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 ($P < 0.05$).

이 결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역사학전공 학생들과 자연과학계열에 속하는 물리교육전공 학생들의 도서관 불안을 측정 비교한 Brannan(2003)의 연구에서 다섯 영역 모두 물리교육전공

<표 6> 전공계열과 도서관 불안

하위영역	전공계열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χ^2	유의확률
직원으로 인한 장벽	인문사회	446	2.63	0.45213	0.123	-	0.902
	자연과학	206	2.62	0.46243			
	예체능	45	2.64	0.38379			
정서적 장벽	인문사회	446	2.50	0.38470	-	7.665*	0.022
	자연과학	206	2.58	0.42825			
	예체능	45	2.62	0.41307			
도서관의 안락함	인문사회	446	2.47	0.38121	-	5.371	0.068
	자연과학	206	2.54	0.37267			
	예체능	45	2.55	0.36346			
도서관에 대한 지식	인문사회	446	2.21	0.43988	-	1.606	0.448
	자연과학	206	2.25	0.43686			
	예체능	45	2.12	0.47374			
기계적 장벽	인문사회	446	2.54	0.49259	-	4.126	0.127
	자연과학	206	2.61	0.49592			
	예체능	45	2.59	0.40343			
전체	인문사회	446	2.50	0.29596			
	자연과학	206	2.56	0.31377			
	예체능	45	2.59	0.28234			

* $p < 0.05$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4.5 도서관방문빈도와 도서관불안

응답자의 도서관방문빈도에 따라 도서관불안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를 도서관 방문 빈도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표본의 수가 가장 작고, 도서관방문빈도가 매우 적은 주 1회 이하 방문 집단을 제외하면, 방문빈도가 커질수록 도서관불안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으로 인한 장벽에서는 주 2-3회 방문 집단이 2.66점으로 가장 많은 불

<표 7> 도서관방문빈도와 도서관불안

하위영역	방문빈도	응답자	불안점수				F	X ²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직원으로 인한 장벽	주 1회 이하	71	2.63	0.40578	1.50	3.33	2.161	-	0.091
	주 2-3회	289	2.66	0.42131	1.33	3.92			
	주 4-5회	220	2.62	0.45352	1.25	3.67			
	주 6회 이상	127	2.54	0.51326	1.33	4.00			
정서적 장벽	주 1회 이하	71	2.61	0.35276	2.00	3.67	-	8.156*	0.043
	주 2-3회	289	2.56	0.37553	1.50	3.50			
	주 4-5회	220	2.51	0.41019	1.17	3.67			
	주 6회 이상	127	2.47	0.40140	1.42	3.83			
도서관의 안락함	주 1회 이하	71	2.48	0.35078	1.38	3.25	-	11.753*	0.008
	주 2-3회	289	2.53	0.35655	1.25	3.38			
	주 4-5회	220	2.52	0.37775	1.38	3.50			
	주 6회 이상	127	2.40	0.42129	1.13	3.63			
도서관에 대한 지식	주 1회 이하	71	2.31	0.40690	1.00	3.00	-	40.862*	0.000
	주 2-3회	289	2.27	0.43472	1.00	3.00			
	주 4-5회	220	2.25	0.42903	1.00	3.00			
	주 6회 이상	127	1.99	0.43462	1.00	3.00			
기계적 장벽	주 1회 이하	71	2.46	0.47054	1.25	3.75	-	4.126	0.127
	주 2-3회	289	2.53	0.46080	1.00	4.00			
	주 4-5회	220	2.63	0.51101	1.00	4.00			
	주 6회 이상	127	2.58	0.52047	1.25	4.00			
전체	주 1회 이하	71	2.55	0.26840					
	주 2-3회	289	2.54	0.27563					
	주 4-5회	220	2.53	0.30165					
	주 6회 이상	127	2.44	0.34965					

* p<0.05

안을 느꼈으며, 주 1회 이하 방문 집단이 2.63점, 주 4-5회 방문 집단이 2.62점, 주 6회 이상 방문 집단이 2.5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의 차이의 통계적 의미는 없다($p < 0.05$). 정서적 장벽에서는 주 1회 이하 방문 집단이 2.61점, 주 2-3회 방문 집단이 2.56점, 주 4-5회 방문 집단이 2.51점, 주 6회 이상 방문 집단이 2.47점으로, 도서관방문빈도가 커질수록 불안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Kruskal Wallis 검정에 의한 평균 비교에서 χ^2 의 근사 유의확률이 0.0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p < 0.05$).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는 주 2-3회 방문 집단이 2.53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주 4-5회 방문 집단, 주 1회 이하 방문 집단, 주 6회 이상 방문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빈도가 커짐에 따라 불안감이 감소되는 일관된 경향은 없지만, Kruskal Wallis 검정에 의한 평균 비교에서 χ^2 의 근사 유의확률이 0.008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도서관에 대한 지식에서는 주 1회 이하의 방문 집단의 불안감이 가장 크고, 방문빈도가 커질수록 불안감이 줄어드는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ruskal Wallis 검정에 의한 평균 비교에서 χ^2 의 근사 유의 확률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기계적 장벽에서는 주 4-5회 방문 집단이 가장 불안감이 크고, 주 6회 이상 방문 집단, 주 2-3회 이상 방문 집단, 주 1회 이하 방문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른 불안 영역들과 다르게 가장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을 제외하면, 방문빈도가 적을수록 도서관 불안감을 덜 느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 방문이 빈번해지면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발생한 요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계로 인한 장벽을 느껴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AS의 기계적 장벽 측정 문항의 수가 3문항으로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적으며, 기계로 인한 심리적 불안보다는 기계의 고장 등 불편함을 측정하도록 제작된 척도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도서관방문빈도와 도서관불안과의 관계는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에서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이용자일수록 불안감이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Jiao and Onwuegbuzie 1997b).

4.7 도서관 이용교육과 도서관불안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경험이 도서관불안을 해소하는데 영향을 주며, 도서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이용교육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Bostick 1992; Jiao , Onwuegbuzie and Lichtenstein 1996; Jiao and Onwuegbuzie 1997b; Shoham and Mizrachi 2001; Van Scoyoc 2003). 도서관이용교육 유무에 따라 도서관불안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두 집단간의 도서관불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정서적 장벽을 제외하면,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원으로 인한 장벽에서는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집단이 2.57점, 그렇지 않은 집단이 2.65점이며,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정서

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에서는 Mann-Whitney의 검정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p<0.05$). 특히, 정서적 장벽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과 다르게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집단이 더 높은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상반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이용교육이 정서적 장벽에 의하여 유발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도서관이용교육에서 교육된 내용들에 대한 부담이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정서적 장벽은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도서관이용교육과 도서관불안 분석

하위영역	도서관이용교육 유무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t	u	유의확률
직원으로 인한 장벽	유	234	2.57	0.42221	-2.111*	-	0.035
	무	473	2.65	0.45972			
정서적 장벽	유	234	2.54	0.41442	-	54157.500	0.643
	무	473	2.53	0.39515			
도서관의 안락함	유	234	2.45	0.36824	-	50508.000	0.057
	무	473	2.52	0.37970			
도서관에 대한 지식	유	234	2.20	0.46795	-	53916.000	0.571
	무	473	2.23	0.43017			
기계적 장벽	유	234	2.55	0.48201	-	53904.500	0.569
	무	473	2.57	0.49510			
전체	유	234	2.50				
	무	473	2.54				

* $p<0.0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이용자가 느끼고 있는 도서관불안의 정도를 측정하여, 현재의 불안 수준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하여 불안의 특성을 이해하며, 가능한 불안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AS를 가지고 측정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점수 평균은 2.55점으로 Bostick(1992)의 연구 결과보다는 도서관불안 수준이 낮다. 그러나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나타난 불안점수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서관불안의 하위 다섯 영역별 LAS 점수를 살펴보면,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이 2.62점으로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영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장벽, 기계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도서관직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기계적 장벽으로 인한 불안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도서관의 안락함에서 오는 불안은 상대적으로 크다.

셋째, 응답자의 성별, 학년, 전공계열에 따라 도서관불안 점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영역에서 남성의 불안감이 여성보다 적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정서적 장벽에서 1-2학년이 3-4학년보다 크다. 전공계열별 차이 또한 정서적 장벽에서 인문사회계열이 불안감이 가장 적고, 다음으로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서관방문빈도가 높을수록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안이 감소하였다.

다섯째, 정서적 장벽 요인을 제외하면,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보다 도서관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서관이용교육이 정서적 불안감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도서관이용교육 참여 후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받은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 불편한 감정이 불안감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불안 하위영역에서 가장 높은 불안 점수를 나타낸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직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계몽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전문직 윤리와 서비스 정신에 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직원

이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정보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안 튜터와 같은 개인화 서비스의 실시가 요구된다. 더불어 도서관직원이 학생들의 모든 정보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안락함 영역에서의 불안감은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게 측정된 요소이다. 도서관의 안락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내부의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여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 내부 시설의 리모델링, 조명기구, 냉난방에 대한 정비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이용자의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 도서관불안은 일정한 경향이 없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도서관이용자교육은 이용자의 개인적 배경과 도서관지식, 도서관이용 수준들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체계화 되어야 한다.

넷째, 정서적 장벽은 높은 불안점수를 나타낸 영역이다. 또한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불안은 가시적 요인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위에서 서술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은 근본적으

로 정서적 장벽이 일정한 수준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용자의 정서적 상황을 측정하여 도서관불안과의 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1개 대학교 도서관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서관불안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보다 일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수 대학교의 학생으로 표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의 복잡한 심리상태인 불안의 한 유형인 도서관 불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관찰, 포커스그룹 연구 등의 질적인 연구방법 등이 함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나현. 2005.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47.
- 남태우, 황옥경. 2005. 도서관불안 이론의 고찰.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2(3): 71-84.
- 남태우, 박현영. 200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151-168.
- Bostick, S. L. 1992. *The Development*

-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Ph D. diss., Wayne State University.
- Brannan, Joyce A. 2003. *A Study of Library Anxiety in History and Physical Education Majors.* M.A.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 Cleveland, Alison. 2004. "Library anxiety: A decade of empirical research." *Library Review*, 53(3): 177-185.
- Jiao Q. G., Anthony J. Onwuegbuzie and A. Lichtenstein. 1996. "Library anxiety: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2): 151-163.
- Jiao, Q. G. and Anthony J. Onwuegbuzie and Christine E. Daley. 1997. *Factors Associated with Library Anxie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16 895.
- Jiao Q. G. and Anthony J. Onwuegbuzie. 1997b. "Antecedents of library anxiety." *The Library Quarterly*, 67(4): 372-389.
- Jiao Q. G. and Anthony J. Onwuegbuzie. 1998. "Perfectionism and library anxiety amo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4(5): 365-371.
- Jiao Q. G. and Anthony J. Onwuegbuzie. 1999a. "Self-perception and library anxiety: An empirical study." *Library Review* 48(3): 140-147.
- Jiao, Q. G. and Anthony J. Onwuegbuzie.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y Anxiety and Social Interdepend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62 079.
- Jiao, Q. G. and Anthony J. Onwuegbuzie. 2002. "Dimensions of library anxiety and social interdependence: Implications for library services." *Library Review*, 51(2): 71-78.
- Jiao, Q.G. and Anthony J. Onwuegbuzie. 2002. *Anxiety Expectation Mediation Model of Library Anxie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78 613.
- Jiao, Q. G. and Anthony J. Onwuegbuzie. 2004.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library anxiety: The role of computer attitud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3(4): 138-144.
- Mellon, C.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2): 160-165.
- Onwuegbuzie, Anthony J. and Qun G.

- Jiao. 1998a. "Understanding library-anxious graduates students." *Library Review*, 47(3-4): 217-224.
- Onwuegbuzie, Anthony J. and Qun G. Jiao. 2000. "I'll go to the library tomorrow: The role of procrastination in library anxiet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1(1): 45-54.
- Onwuegbuzie, Anthony J. and Qun G. Jiao. 2004. "Information search performance and research achievement: An empirical test of the anxiety expectation mediation model of library anxie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1): 41-54.
- Soham, S. and Diane Mizrachi. 2001. "Library anxiety among undergraduates: A study of Israeli E. Ed.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7: 305-311.
- Van Kampen, Doris J. 2003. *Library Anxiety,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and Doctoral Use of the Library*. Ed. disse.,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Van Kampen, Doris J.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5(1): 28-34.
- Van Scoyoc, Anna M. 2003. "Reducing library anxiety in first-year student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2(4): 329-341.